



[동물복지] 獨 소매업체, 새로운 동물복지 우유 라벨링 도입

- 실내사육, 방목, 유기농 농가를 기준으로 등급 부여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소매업체들이 새로운 동물복지 우유 라벨링을 도입하고 나섰다.

최근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은 유통 중인 우유의 동물복지 기준을 실내사육(1, 2단계)과 방목 그리고 유기농 농가(3, 4단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3, 4단계)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우유만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참여업체 중 하나인 알디(Aldi)는 판매 중인 우유 25%가 3, 4단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이를 4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1단계를 부여받은 농가에서는 우유를 구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30년에는 판매되는 우유 모두가 3, 4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금년 안에 판매 중인 모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2단계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 새로운 동물복지 라벨링 부착을 위해 패키징 교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월 17일자 >

[낙농경영] 美, 원유 중 동물 의약품 잔류물질 검출률 감소세

- 잔류물질 검출률 사상 최저치...전년 회계연도 대비 폐기량 약 16.5% 줄어



미국에서 원유 중 동물 의약품 잔류물질 검출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국(FD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회계연도 기준) 동물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에서 분석된 약 390만개의 원유 샘플 중 451개만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당국은 가공 전 집유된 원유 샘플을 채취해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으로 판명되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폐기된다. 이에, 지난 회계연도 기준 약 1,324만 파운드의 원유가 양성 반응을 보이며 폐기되었으나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폐기량이 전년 회계연도 대비 약 16.5% 줄어들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1월 17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